

2.3 pydantic 모델을 사용한 요청 바디 검증

FastAPI에서는 정의된 데이터만 전송되도록 요청 바디를 검증(validation)할 수 있다. 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. 요청 데이터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악의적인 공격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다.

FastAPI에서 모델은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고 처리돼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구조화된 클래스다. 모델은 pydantic의 `BaseModel`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생성된다.



pydantic

pydantic은 파이썬의 타입 어노테이션(type annotation)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다.

모델은 요청 바디 객체와 요청 응답(request-response) 객체의 유형에 관한 힌트를 제공한다. 여기서는 pydantic을 사용해 요청 바디를 검증하는 부분만 살펴본다.

다음은 예제 모델이다.

```
from pydantic import BaseModel

class PacktBook(BaseModel):
    id: int
    Name: str
    Publishers: str
    Isbn: str
```

PacktBook 모델은 pydantic의 `BaseModel`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정의되며 네 개의 필드만 갖는다. 이제 이 pydantic 모델을 사용해 입력값을 검증해보자.

앞서 todo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이템을 `todo_list`에 추가하는 라우트를 정의했으며 이 라우트는 다음과 같이 요청 바디를 딕셔너리(dictionary)로 받는다.

```
async def add_todo(todo: dict) -> dict:
    ...
```

POST 요청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냈다.